

[1] 오정방(吳定邦)<1552~1625>

자는 영언(英彦)이요, 호는 퇴전당(退全堂)이며, 본관은 해주이니, 병조판서에 추증된 수역의 아들이다. 명종때에 무과 장원급제하였고, 임진왜란에 공을 세워 선무공신에 책록되었다. 광해군 때에는 인목대비를 폐위하자는 간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고, 갑자년에 이괄의 발란을 당하여 호가 대장으로서 인조를 모시고 공주에까지 호종했다. 벼슬은 경상 절도사를 지내고, 병조판서에 추증되어, 시호를 정무라했다. 영의정 이경석이 신도비의 비문을 짓고, 현손 태주가 묘지를 지었다.

[2] 이승열(李聖烈)<高宗 2年 1865~? >

賜號는 退菴, 本貫은 禮安, 巍巖 李柬先生의 6代孫, 相勳의 아들로서 牙山郡 松岳面 出生이다. 高宗 25年(1888) 判官으로 別試文科에 及第(丙科), 5個郡 郡守를 거쳐 全羅, 慶尙道 監察使를 지내고 이어 嘉善大夫議政府參贊原任, 奎章閣直學士兼侍講官등을 歷任했다. 高宗 44年(1905) 乙巳條約이 맺어지자 亂職하고 驪州에 隱居하며 閔宗植, 李始榮등과 協議하여 義兵을 糾合하는 한편 田畝 400餘石分을 放賣하여 獨立運動資金을 全擔했다.

密告한 者 있어 義兵各簿가 押收되어 400餘名이 逮捕되자 이를 悲痛斷食끝에 飲毒自殺하였다. <日省錄, 國朝榜目>

[3] 성달영(成達永)<高宗 10年 1873~1932>

獨立運動家, 字는 景伯, 號는 琵琶軒, 本貫은 昌寧, 文簡公 牛溪 成渾先生의 12世孫으로 高宗 10年(1873) 6月 15日 忠淸南道 洪城郡 結城에서 誕生하였다.

先生은 天稟이 溫厚剛直하고 仁愛와 節義를 崇尚하는 氣品을 지니었다. 高宗 42年(1905) 日帝의 銃劍아래 乙巳保護條約이 締結되자 先生은 親弟 成文永과 함께 忿然히 일어나 亡國的條約의 無效와 破棄를 宣言하고 金在琬先生등 憂國志士와 協力하여 洪州를 據點으로 義兵을 일으키더니 義兵將에 推戴되어 猛躍奮鬪하였으며 이때에 金箕佑, 朴齊賢, 朴昌魯, 朴潤植等 諸義岳將도 모두 同列에 參與하였다. 先生은 亡國의 悲運에 臨하여 救國運動의 先鋒이 되어 義兵을 指揮하면서 抗日鬪爭을 展開하던 中 1913年에 蔡基中, 柳璋烈先生 等에 依하여 基에서 組織된 秘密結社인 大韓光復團에 自進入團하여 獨立運動을 積極擴大하였다.

1915年에 大韓光復團은 大韓光復會로 改稱되었고, 同年 8月 25日에는 大邱達城公園에 數百名의 同志가 會合하여 獨立運動을 爲한 새로운 組織과 活動方案을 論議하였으며 1916年에는 中國에서 活躍하던 盧伯麟, 金佐鎭將軍 및 金漢鍾, 朴商鎭, 蔡基中, 張斗煥 等の 志士들을 맞이하여 다시 大韓光復團이라 改稱한 다음 組織을 全國的인 規模로 擴大하여 敵日帝를 驅逐하고 祖國光復을 爲하여 身命을 바칠 것을 誓告하고 血盟의 決意를 다짐하였다. 이로부터 선생은 忠淸道를 活動舞臺로 하여 안으로는 獨立運動 軍資金을 募金하고 밖으로는 中國等地的 獨立軍과 提携하면서 倭警의 逼迫과 貧苦에 시달리는 家族을 잊은채 雪風寒兩에도 不拘하고 日本仇敵과 親日兇徒의 打倒를 爲해 獻身하던중 不幸히도 1918年 1月에 倭警에게 逮捕되어 公州刑務所로 收監되었다가 京城과 大邱의 刑務所로 移監되었다. 囹圄의 몸으로 殘忍無道한 온갖 拷問과 恥辱속에서도 뜻을 굽히지 않다가 마침내 出監하게 되었으나 倭警의 苛酷한 監視로 因하여 救國의 雄志를 펴보지도 못하고 1932年 11月 3日에 祖國光復을 못 본채 牙山郡 道高面 石堂里에서 60歲를 一期로 恨많은 荊棘의 生涯를 마쳤다. 先生의 活動은 大部分이 秘密裡에 實行되었으므로 現在하는 記錄이나 口傳은 氷山一角에 不過하여 先生의 赫赫한 자취를 다살피기는 어렵다. 先生의 義兵活動은 己未 3·1運動의 母胎가 되었으며 그 以後의 抗日鬪爭은 祖國光復의 基盤이 되었다. 墓所는 牙山郡 道高面 石堂里에 있다. <韓國獨立運動史, 獨立運動有功者成公達永之墓碑銘>

[4] 오세라야사(吳세라女史)<李朝 ?~? >

海州後人 府事 오태근의 長女로 京畿道 安城郡 陽城面 덕외에서 出生하여 通信大夫 李奎의 婦人으로 出嫁했다. 夫君 李奎 將軍의 한 平生 救國運動으로 집을 떠난뒤에 年老한 媿母를 至誠으로 孝養하였다. 1919年 3·1獨立萬歲후에 시베리아로 가서 夫君의 獨立運動을 內助하다가 夫君이 殉國한 후에 아들 이 민호를 데리고 中國北京에서 抗日鬪爭을 하던중 1939年 3月 9日 이곳에서 殉國했다. 牙山郡 仁面 月船里에 그의 行蹟을 記錄한 忠國殉義

碑(一名 : 五忠碑)가 있다. <忠國殉義碑銘>

[5] 임화철(林化喆)<高宗 27年 1890~1941>

號는 道谷, 別名은 千根, 本貫은 扶安, 明宗朝의 忠臣 江原道 觀察使 億齡의 12世孫이다. 高宗 27年(1890) 6月 7日 公州郡 利川面 大同里에서 誕生하여 貧困한 家庭環境에서 자라나 鄉里의 書塾에서 漢學을 修學하다 高宗 36年(1899) 牙山郡 仙掌面 君德里로 移徙하였다. 그는 天稟이 清白剛直하고 聰明하였으며 愛國精神이 透徹하여 1910年 韓日合邦이 된 후에는 나라잃은 설움을 恨歎하고 抗日鬪爭에 碎身할 것을 決心, 同志들을 糾습하여 機會를 엿보던 中 1919年 3.1運動이 일어나 全國各地에서 獨立示威運動이 展開되자, 이에 呼應하여 丁奎熙, 徐蒙祚, 吳相根, 金千鳳등과 謀議하고 同年 4月 4日 牙山郡 仙掌面 君德里所在 仙掌市日을 ○하여 200餘名의 群衆에게 獨立運動을 煽動하여 大韓獨立萬歲를 絶叫하였으며 主動한 同志들과 같이 棍棒을 휘드르며 群衆을 指揮 仙掌面 憲兵駐在所에 殺到하여 投石하고 構內에 侵入 유리窓등을 破壞하였다. 主謀한 同志들과 같이 日憲兵에 逮捕되어 殘忍無道한 拷問과 恥辱속에서도 뜻을 굽히지 않으시다 公州刑務所로 移監되었으며 同年 5月 12日 公州地方法院에서 保安法 違反 및 騷擾罪로 懲役 2年 6月을 宣告받고 이에 不服 抗訴를 提起하였으나 同年 9月 4日 高等法院에서 棄却되어 쓰라린 獄苦에 시달려 身病으로 苦生하다 刑期를 마치고 出獄하였다. 그 후 倭警의 奸惡한 監視로 因하여 救國의 雄志를 펴보지도 못하고 8.15解放을 맞이하였다. 1961年 4月 20日 享年 72才를 一期를 恨많은 荊棘의 生을 마쳤다. 政府에서는 1980年 8月 14日 大統領表彰을 追 하였다. 墓所는 牙山郡 道高面 孝子里 山 18番地에 있다. <獨立志士林化喆之墓碑銘>

[6] 이심숙(一名 : 엘라)<高宗 30年 1893~1921>

後人 侍從 이춘식의 세째딸로 高宗 30年(1893) 서울에서 出生하여 20才때 李奎甲의 婦人으로 出嫁했다. 稟性이 賢淑하며 凡事에 寬厚하였다. 梨花學堂을 卒業하고 育英事業에 從事하다가 1919年 3.1獨立運動때 愛國婦人會를 指導하던 中 日警에 逮捕되어 平壤, 公州등지에서 獄中生活을 하였다. 그때 日憲兵은 서울에서 婦人의 품에 안긴 아기를 빼앗아 打殺하고 婦人을 逮捕 連行하였다. 그 후에 夫君이 獨立運動을 하고 있는 시베리아로 密行하다가 咸鏡北道 雄基港에서 倭賊에게 逮捕되어 苛酷한 拷問을 받고 1921年 9月 4日 殉國했다. 政府에서는 1962年 3月 1日 建國功勞勳章을 追 하였다. 牙山郡 仁面 月船리에 그의 行蹟을 記錄한 忠國殉義碑(一名 : 五忠碑)가 있다. <忠國殉義碑銘>

[7] 이민호(高宗 31年 1894~1944)

德水後人, 通訓大夫 李奎 將軍의 長男으로 高宗 31年(1894) 4月 7日 忠淸南道 牙山郡 市邑에서 出生했다. 京城醫學 專門學校를 卒業하고 아라사에서 醫學博士學位를 받았다. 仁術事業에 從事하다가 1919年 3.1獨立萬歲運動때 黃海道, 京畿道, 忠淸道, 全羅道 등지로 巡廻하며 獨立萬歲運動을 指導하던 中 日警에게 逮捕되어 平壤에서 獄中生活을 하였다. 滿期出獄한 후에 다시 시베리아로 亡命하여 俄中兩國를 舜臺로 獨立運動을 繼續하였으며, 嚴親이 殉國한 뒤에 北京에서 地下工作活動을 하던 中에 倭賊에게 逮捕되어 1944年 3月 16日 倭賊의 苛酷한 拷問으로 北京에서 殉國했다. 牙山郡 靈仁面 月船리에 그의 行蹟을 記錄한 忠國殉義碑(一名 : 五忠碑)가 있다. <忠國殉義碑銘>

[8] 정규희(丁奎熙)<高宗 32年 1895~1979>

諱는 奎熙, 號는 奎菴, 兒名은 壽吉, 本貫은 羅州로서 始祖는 麗末 檢校大將軍 丁允宗의 27世孫이다. 公은 1895年 1月 3日 禮山郡 大述面 梨峙里에서 誕生하여 貧困한 家庭에서 자라났다. 公은 天稟이 清廉 剛直하고 聰明한 智慧로 1902年 鄉里의 書塾에서 漢學을 修學하다가 牙山郡 仙掌面 君德里로 移徙하였으며 1907年 天道教에 入教하여 人乃天宗旨와 事人如天의 教理를 探究하고 1908年 新昌 私立 新民學校에 入學하여 新學問을 닦아 學問과 德行이 남달리 뛰어났다.

公은 忠義로운 氣品으로 愛國精神이 透徹하여 1910年 韓日合邦이된 後에는 나라일은 설움을 恨歎하고 抗日救國鬪爭에 碎身할 것을 決心 同志들을 糾合하고 機會를 엿보던 중에 1919年 3·1運動이 일어나 全國 各地에서 獨立示威運動이 展開되자 이에 呼應하여 金千鳳, 徐蒙祚, 林千根, 吳相根 等과 謀議하고 同年 4月 4日 仙掌市日을 擇하여 二百餘名의 群衆으로 하여금 獨立示威運動에 加擔도록 主導하여 大韓獨立萬歲를 絶叫하고 主動한 同志들과 같이 根棒을 휘두르며 群衆을 指揮 仙掌面 憲兵駐在所에 殺到하여 投石戰을 展開하고 構內에 侵入 유리窓 等を 破壞하는 등 日帝의 治安을 妨害하였다. 公은 主謀한 同志들과 같이 日兵에 逮捕되어 殘忍無道한 拷問과 恥辱속에서도 뜻을 굽히지 않으시다 公州刑務所로 移監되었으며 同年 5月 12日 公州地方法院에서 保安法 違反 및 騷擾罪로 懲役 2年 6月을 宣告받고 이에 不服 抗訴하였으나 同年 9月 4日 高等法院에서 棄却되어 쓰라린 獄苦에 시달려 身病으로 苦生하다 刑期滿了로 出獄하였다. 公은 繼續 監視를 當하면서도 1938年 日帝 植民地 統治 深化期에 天道教 滅倭祈禱運動에 加擔하여 活動하다 倭警에 被檢 溫陽警察署에 拘禁되어 酷毒한 拷問으로 身病을 얻고 13日만에 出監되어 30餘日間 加療를 받는 등 苦生도 많았다. 그 後 倭警의 奸惡한 監視로 因하여 救國의 雄志를 펴보지도 못하고 8·15解放을 맞이했다.

公은 崇高한 愛國精神을 發揮하여 祖國의 自主獨立運動에 獻身하였음에도 이를 當然한 일로 生覺하고 政府의 褒賞을 辭讓하였으며 天道教의 基本理想으로 祖國의 平和統一만을 念願하다 1979年 5月 23日 享年 八十五歲를 一期로 恨많은 刑棘의 生涯를 마쳤다. 政府에서는 1980年 8月 14日 大統領表彰을 追 하였다. 墓所는 牙山郡 仙掌面 君德里 山 38番地에 있다. <愛國志士 丁奎熙先生墓碑銘>

[9] 진수린(陳壽麟)<高宗 35年 1898~1930>

獨立運動家, 牙山郡 新昌面 新達里 181番地에서 出生한 그는 抗日獨立運動家인 崔益秀와 四寸 男妹間으로 두사람은 평소 매우 親密한 사이로 지냈었다. 그는 崔益秀의 抗日獨立思想에 感化되어 가던 중 3·1獨立萬歲事件이 일어나자 日帝에 대한 우리 民族에 대한 虐殺, 拷問 등 世界에서 찾아보기 힘든 天人共怒할 野 的인 行動에 激忿, 日帝에 대한 敵愾心을 갖게 되어 抗日獨立運動을 하기에 이르렀다. 軍資金募金을 위해 上海臨時政府로부터 本國에 돌아온 崔益秀의 뜻을 도와 그가 勤務하던 牙山金融組合 公金을 獨立運動資金으로 빼내기로 한 후 온갖 어려움을 무릎쓰고 公金을 빼내는데 成功했다. 이렇게 해서 그는 崔益秀, 李鍾洛과 함께 그 公金을 가지고 上海로 갔다. 이 세사람의 獨立鬪士中 李鍾洛은 그 곳에서 獨立運動을 하던중 痢疾病을 얻어 世上을 떠났고 崔益秀는 再次 軍資金募金을 위해 本國에 돌아왔고 그는 上海에 머물러 있으면서 獨立運動을 繼續했다. 그가 上海에서 活動한 事項에 관해서는 그 資料의 消失로 알바가 없다. 다만 그 當時의 狀況을 證言을 통해서 알 수 있을 정도이다. 證言에 의하면 獨立運動을 하기위해 家庭도 職場도 淸음도 버리고 生命을 걸고 倭賊과 싸워서 祖國光復의 그 날을 위해 온갖 情熱을 바쳤다고 한다. 그는 1929年頃 上海에서 逮捕되어 公州地方檢察廳에 移送되어 取調를 받았으며 公州地方法院에서 懲役 2年刑을 言渡받고 公州刑務所에서 服役하던중 不過 몇달을 앞두고 어느날 죽음 直前에 病保釋으로 풀려나 집에서 治療를 하였으나 모진 拷問으로 시달린 그는 33才의 젊은 나이로 끝내 世上을 뜨고 말았다. 墓所는 牙山郡 新昌面 邑內里 마을 산에 있는데 後孫이 없어 조카들이 省墓를 하고 있다. <韓國獨立運動史... 등>

[10] 한성희(韓成熙)<純宗 6年 1913~? >

獨立運動家, 牙山郡 屯浦面 出生으로 吉州農業學校를 卒業하였다. 1930年 3月 1日에 抗日傳單을 뿌리다가 發覺되어 獄苦를 겪었고 出獄後 2萬杖의 太極旗를 準備하여 祖國解放과 同時에 配付하는등 愛國愛族하였으며 檀君崇靈會總務를 지냈다. 溫陽溫泉 地方에서 최초의 電氣架設은 公의 숨은 努力이 있었다고 한다.

[11] 이세영(李世永)<李朝 ?~? >

李忠武公의 後孫, 大韓帝國의 陸軍正尉에다. 憲兵隊長署理를 歷任한 正規武官 出身이었다. 乙巳五條約以後 義兵活動을 꾀하다가 日本 憲兵에 逮捕되어 終身流刑의 宣告를 받고 黃州에 流配되었다가 滿州로 건너가서 新興學校의 校長이 되어 民族精神教育에 힘썼고 이 學校를

新興武官學校로 發展시켜 獨立軍을 養成하였다. <武裝獨立運動秘史>

[12] 강태건(姜泰建)<李朝 ?~? >

牙山郡 松岳面 東花里 出身으로 洪州義兵의 抗戰에 參加하여 勇戰하였다. <武裝獨立運動秘史>

[13] 유진원(兪鎭元)<李朝 ?~? >

牙山郡 溫陽邑 長存里 出身으로 靑陽出身中軍인 李圭泰와 義兵將 金福漢의 先鋒將이 되어 洪州城의 倭兵을 공격하였다. <武裝獨立運動秘史>

[14] 이종옥(李種玉)<李朝 ?~? >

李忠武公의 宗孫, 莫大한 私財와 宗中 財産을 獨立軍養成資金으로 喜捨하였고 自身도 獨立運動에 獻身하다가 忠武公의 後裔답게 一生을 祖國에 바치었다고 한다.

[15] 장두환(張斗煥)<高宗 31年 1894~1921>

獨立運動家, 天安郡 歡城面 三龍里(現 天安市 三龍洞)에서 出生하였다. 1916年 25歲의 弱冠으로 庚昌淳등과 獨立運動에 투신하여 光復會 忠南責任者로 활약하였다. 獨立運動資金을 얻출하기 위하여 資産家를 조사하고 회원모집에 힘써 姜爽周, 柳重協, 趙鍾喆, 成達永, 金昇浩등 쟁쟁한 人士가 光復會員이 되었다. 더우기 自身の 私有財産을 모두 투입하여 銃彈購入費에 總當하여 金鍾漢, 朴尙鎭을 도왔으며, 이에 감동한 有志人士들의 협조로 軍資金모집에 일단 성공하였다. 그후 京城府 仁寺洞 魚東河宅을 근거로 贊助希告文을 등사하여 各方面으로 발송하는 동시에 中國에서 활약하는 李東寧, 李始榮, 安昌浩등 巨物級人士와 접선 활약하였다. 계속하여 親日面長이며 獨立活動의 罫當꾼인 道高面長 朴容夏를 찾아가서 光復會명義의 死刑宣告文을 제시하고 즉석에서 처형하였다. 이듬해 4月 불행히도 倭警에게 잡혀 公州地方法院에서 死刑宣告를 받았으나 京城履審法院에서 10年懲役 宣告를 받고 복역중 浦刑務所에서 獄死하였다. 당시 나이 28歲로 꽃다운 청년을 祖國光復을 위해서 바쳤다. 1963年 3月 1日 大韓民國 建國功勞勳章單章을 追 하였다. <韓國人名大事典>

[16] 이민화(李敏華)<高宗 35年 1898~1923>

獨立運動家, 牙山출신이다. 1917年 만주에 亡命하여 大倭教에 입교, 西路軍政署에 가입하였다. 1919年 北路軍政署 조직에 參與하여 작전참모경 중대장이 되고 사관학교 교관을 역임하였다. 이듬해 靑山里 전투에 참가한 후 泉水坪, 馬鹿溝 十里坪 등지에서 지휘관으로 일본군과 싸웠다. 1923年 노령 국경인 밀산현에서 대대장으로 전투중 전사했다. 1963年에 大韓民國 建國功勞勳章 單章이 수여되었다. <朝鮮民○動年鑑>

[17] 조종희(趙鍾熙)<1918~? >

1918年 8月 15日 平南 순청에서 出生, 1943年 7人殉國會를 組織하여 會長이 되었다. 1944年 1月 日帝下에 1~2回 徵兵으로 壯丁을 뽑아 平南순청에서 予備訓練시킬때 訓練生 40名과 訓練教官 김치양을 說得시켜 安重根義士의 殉國精神을 가르쳐 一線에서 倭兵을 죽이게 하였다. 殉國會員으로 活動하다가 1944年 5月 15日 아침새벽에 會員 7人이 逮捕되어 순청 警察署에서 同年 12月 18日 平壤刑務所로 押送되었다. 이듬해 4月 11日 總務 김동협과 같이 3年刑을 宣告받고 服役中 祖國光復과 同時에 釋放되었다. 1947年 7月 18日 越南하여 排芳面 公須里 100番地 예수교 長老教會 牧使로 있었다.